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문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2013.11.07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여성 고용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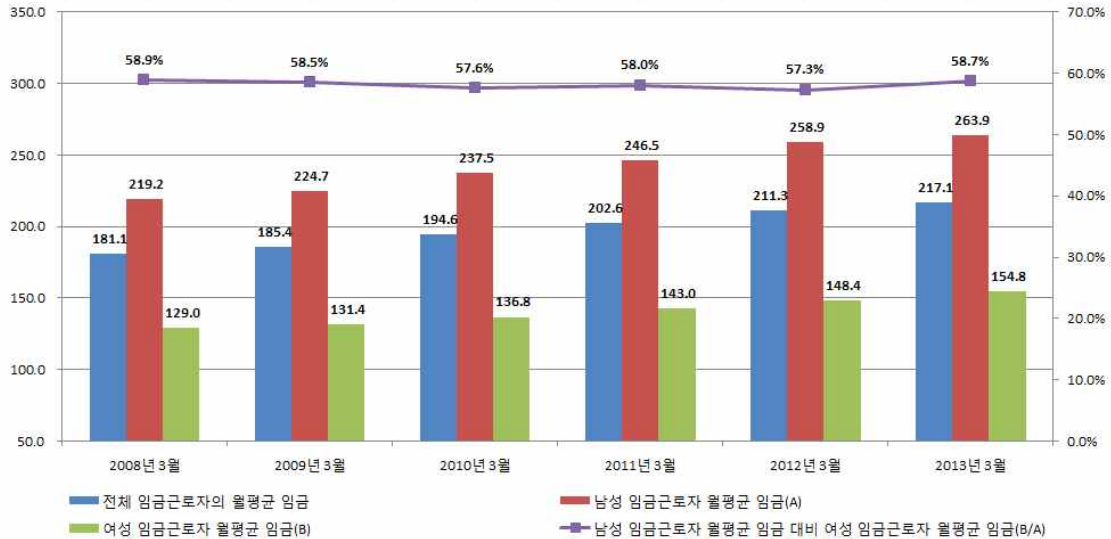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 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 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월평균 임금 기준 성별 임금격차 (단위 : 만원, %)



※ 월평균 임금은 우측 축,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은 좌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의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이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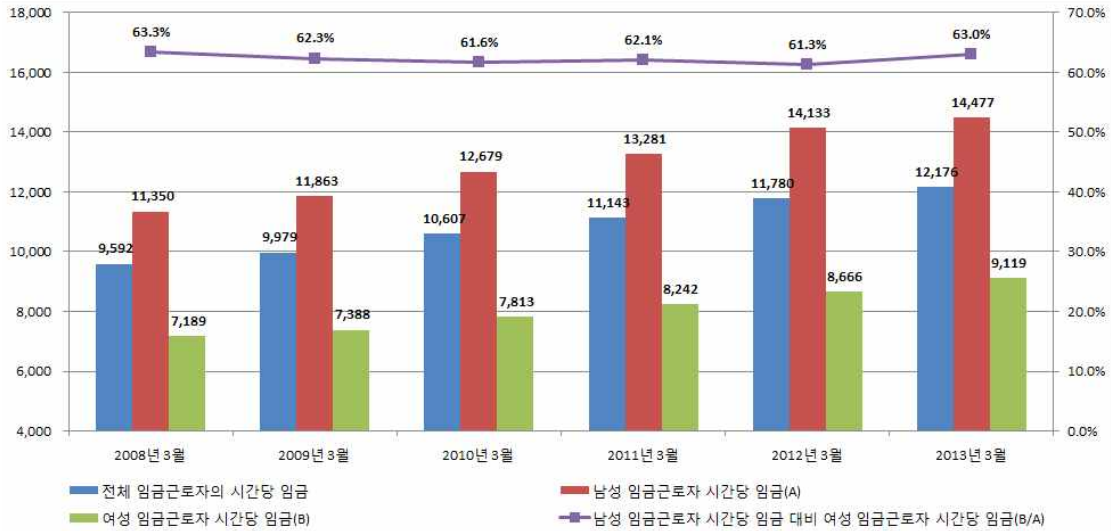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 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 임금격차 (단위 : 원, %)



※ 시간당 임금은 우측 축,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은 좌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의 각 연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이용 추계

인적자본이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교육수준이나 직장에서의 교육훈련 여부, 재직기간과 같은 인적자본 축적 정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혹은 가정 내 가사와 육아로 인해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힘들며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의 경우 최근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가 없지만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의 차이로 일정 수준의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자본의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교육훈련 여부, 재직기간과 같은 인적자본변수와 노동시간을 통제할 경우에도 여전히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 31%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¹⁾. 이는 노동시간이 같고 인적자본 수준이 같아져도 여전히 남성 임금근로자와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에 일정 수준의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1) 로그 월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수준, 교육훈련 여부, 재직기간, 노동시간을 독립변수로 한 간단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임



그렇다면 노동시간과 인적자본의 차이를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일정 부분은 남성과 여성 사이 종사하는 일자리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볼 수 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자리 특성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소위 유리천장이나 유리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임금 수준이 높은 관리자가 되는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든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 및 직종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격차가 이와 같은 일자리 특성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면서 임금 수준도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도 여기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자리 특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특성의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도 존재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선형회귀분석을 해보면 노동시간과 인적자본변수와 함께 기업규모, 산업, 직종, 비정규직 여부 등과 같은 일자리 특성 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도 여전히 남성의 임금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런 임금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별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이는 노동시간과 인적자본 수준이 동일하고, 일자리 특성이 같아도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노동시장 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가지는 문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직면하는 이유는 노동시간의 차이나 교육수준, 교육훈련 여부 등 인적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부를 포함해 소위 유리천장이나 유리벽으로도 불리는 일자리 특성의 차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차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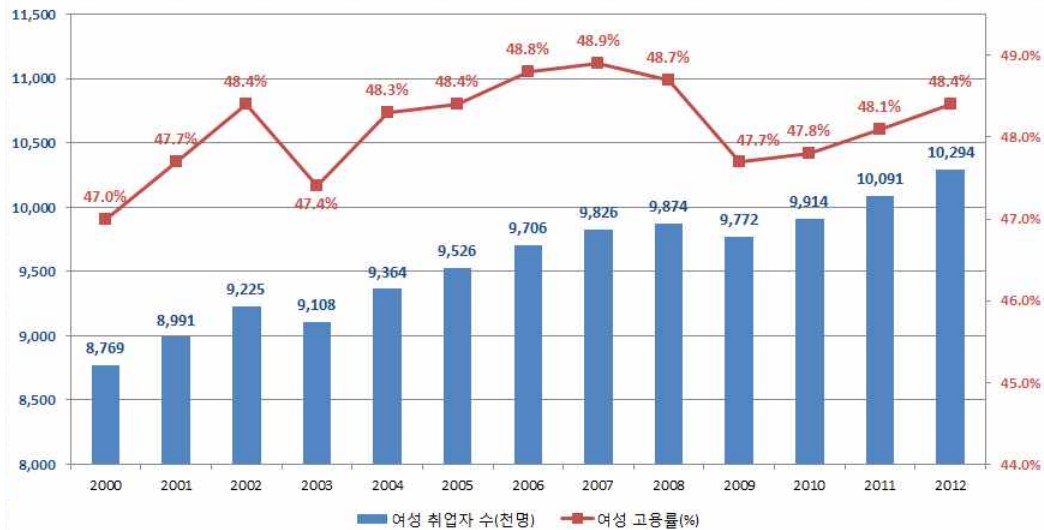
- 2) 로그 월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동시간, 인적자본변수(교육수준, 교육훈련 여부, 재직기간)와 함께 정규직 여부, 기업규모, 산업, 직종을 통제한 간단한 선형회귀분석을 결과임. 분석결과에 따르면 23% 정도의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분석변수의 한계로 인해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성별 임금격차를 모두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우선,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고용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요 공약인 고용율 70% 달성에도 여성의 낮은 임금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11년을 기점으로 여성 취업자 수는 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률은 5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인구 증가 속도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여성 중 일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육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노동시장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시켜 여성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명, %)



※ 취업자 수는 우측 축, 고용률은 좌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자발적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남성의 60% 수준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아야 하고 고용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이 여성들의 자발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과 교육훈련을 받았어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좋지 않은 일자리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 고용률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여성의 낮은 소득으로 이어져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Pierc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여성이 빈곤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빈곤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가족의 해체, 개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단의 미비, 여성의 낮은 임금 등이 그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2년 현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을 구해보면 전체 인구 중 14.0%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⁴⁾, 이 때 가구 소득의 주요 원천인 가구주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남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빈곤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9.8%인 반면,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1.8%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인구의 높은 빈곤율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임금수준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성별 임금격차,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 고용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 이행과 함께 심각한 수준에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이는 통계청과 같은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이용해 계산함. 하지만 통계청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분배지표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함께 농가경제조사를 사용하고 있어 본 분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기존 정책들을 보다 강화해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노동시장 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들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승진할 때, 혹은 일자리를 구할 때 직면하게 되는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통해 유리청장, 유리벽 등 여성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비중이 큰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노력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큰 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정책 역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면하게 되는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앞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인적자본 축적 수준, 일자리의 특성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장 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와 같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1월 0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다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평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부문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 개혁의 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04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정태인
이슈진단	11/05	유아 공교육, 사교육에 잠식되다	최정은
이슈진단	11/07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문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김수현